

#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 Relations between Conjugal Power and Violence according to Social Clas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대학원생 전 춘 애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chool Student; **Chun-Ae Jun**

### < 목 차 >

- |            |             |
|------------|-------------|
| I. 서 론     | 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conjugal power type and conjugal violence level according to social class. This study was also intended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conjugal power type and conjugal violence lev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2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Conjugal power was measured with questionnaire based on several power studies. And CTS (Conflict Tactics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conjugal violence level.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x^2$ -test, Pearson's  $r$ ,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Cronbach's  $\alpha$  for reliability were performed.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class in conjugal power type: The higher social class of the family, the more Syncratic Type were found. And the lower social class of the family, the more Wife Dominant Type were found.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ocial class in conjugal violence level: Couples of the lowest class appeared to be more verbal aggression and physical violence.

3. The most severe Husband-to-Wife verbal aggression and physical violence were appeared when the conjugal power type is either Husband Dominant Type or Wife Dominant Type.

## I. 서 론

최근 1980년을 전후해서 부부폭력이 여러나라에서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부부폭력은 오늘날 세계에 널리 보급된 현상으로서<sup>1)</sup>, 근래에 없었던 현상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개인과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는 통념때문에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않고 문제화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시 말하여 부부폭력을 가정밖의 폭력과는 달리 의례히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한다<sup>2)</sup>.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부부폭력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서, 구조적 이론과 자원이론에 의하면 하류층의 사람들에게서 어느 정도 더 높은 가족폭력을 예언할 수 있다고 한다<sup>3)</sup>. 즉 하류층에서는 사회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폭력발생이 더욱 빈번하고, 또한 남편의 상대적 권력이 적으므로 해서 남편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하기 위해 최후의 자원으로서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sup>4,5)</sup>. 이에 대해 Straus<sup>6)</sup>는 부부권력구조가 극도로 남편지배 또는 부인지배일 때 폭력사용이 높아진다고 하면서 특히 부인이 가족내 의사결정에서 지배적일 때 가족의 폭력수준이 가장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Dobash와 Dobash<sup>7)</sup>는 부부간의 지위문제가 부부간의 갈등 요인중의 하나가 되면서 폭력을 야기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면 부부권력이 부부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권력과 부부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부부권력과 부부폭력을 사회계층과 연관시킨 연구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시대적 필요에 부응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권력유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계층이 부부폭력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사회계층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A. 부부권력

## 1) 부부권력의 개념

권력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가 어렵다. 이러한 권력에 대해 Winter<sup>8)</sup>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의도된 결과들을 생성케 하는 능력이라 했으며, Cromwell과 Olson<sup>9)</sup>은 체계적 특성으로서 권력을 사회체계내에서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잠재적, 실제적 능력이라 하였다. 또한 McDonald<sup>10)</sup>에 의하면 권력은 타인에 의해서 방해받을지라도 사회적 관계내에서 자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동적인 현상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체계적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그리고 권력은 인지적(perceptual), 행동적 현상이며, 항상 불균형적 관계를 포함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권력을 Cromwell과 Olson<sup>9)</sup>은 권력원천(power base), 권력과정(power process), 권력결과(power outcome)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부부간의 권력원천은 실질적 차원인 권력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어느만큼 지녔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권력의 자원 또는 기반을 의미한다. 두번째는 권력과정으로 부부간의 일상적인 토론, 의사결정, 문제 해결, 갈등 해소의 과정에서 권력이 어떤 형태로 행사되는가에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직접관찰과 측정에 의존한다. 세번째 권력결과는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로서, 대부분의 부부권력 연구는 이러한 권력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권력의 어느 한 영역만을 고려한다는 것은 부부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sup>11)</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부권력을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잠재적, 실제적 능력으로서 자신의 목표나 소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배우자의 능력으로 정의하며, 부부권력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부부권력에 관한 이론

부부권력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가족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자원이론(resource theory),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resources theory in cultural context) 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끊임없는 교환 과정으로서, 불균형의 교환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형성을 초래한다고 한다<sup>12)</sup>. Heer<sup>13)</sup>은 교환이론에 비교수준(comparison level)과 대안에서의 비교수준(comparison level for alternatives)의 개념을 첨가하여, 만약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의해서 제공받는 보상이 많고 현재 결혼의 만족스런 대안이 적으면 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더 많이 의존하며, 의존은 권력과 역으로 관련되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Blood와 Wolfe<sup>14)</sup>의 자원이론에 의하면, 결혼관계에 필요한 자원을 많이 공급한 편이 권력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이론만을 가지고 부부권력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을 제안한 Rodman<sup>15,16)</sup>에 의하면 부부권력은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자원과 부부권력 분포에 대한 문화적, 하위 문화적 기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4가지 사회유형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가부장제(patriarchy)사회로, 이는 강한 가부장적 가족규범을 지니며 지위계층에 따라 남자의 권위에 차이가 없는 사회이며, 두번째 유형은 수정된 가부장제(modified patriarchy)사회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더 높은 지위에 있고 특히 교육을 많이 받은 남편일수록 비전통적이고 평등적인 규범에 많이 노출되어 가부장적 규범들은 융통성을 지니게 되나, 하류에서는 가부장적 규범들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편이 가족내에서 합법적 권위를 지닌다. 즉 가부장적 권위가 사회계층과 역으로 상관된다. 세번째는 과도기적 평등주의(transitional egalitarianism)사회로서 부부권력에 대한 규범이 융통적이며, 이러한 사회에서만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편의 권력과 정적으로 상관된다. 네번째 평등주의(egalitarianism)사회는 강한 평등주의적 가족규범을 가지며 남편과 부인의 권력공유가 가장 높고 지위계층에 따라 권위형태에 다양성이 없는 사회유형이

다.

## B. 부부폭력

### 1) 부부폭력의 개념

“보다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폭력에 대해 Goode<sup>17)</sup>는 신체적인 힘에 의한 비합법적인 행위라고 정의하였고, O'Brien<sup>18)</sup>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traus<sup>19)</sup>는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Conflict Tactics Scale을 제작하였는데, CTS는 갈등 발생시 조용하게 의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즉 폭력수준이 점차로 높아지는 문항들로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의논행동(Reasoning)은 이성적인 토의, 논리적인 사고동지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며, 둘째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은 협오감, 적대감, 협박 등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위협하거나 상징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해결방법이다. 셋째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폭력을 일반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정서적·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정서적·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Straus<sup>19)</sup>의 CTS에 근거하여 부부폭력수준을 세 영역으로 분류해서 부부폭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 2) 부부폭력발생에 관한 이론적 접근

부부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은 개인내적 이론(Intraindividual Theories),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 Psychological Theories), 사회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ies)의 3범주로 나누어지고, 이 3범주의 이론들은 몇개의 세부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sup>20)</sup>.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들중에서 부부폭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론들을 중심으로 부부폭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개인내적 이론 : 이 이론은 폭력과 학대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폭력 행위자의 인성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알콜·약물이론은 알콜과 약물이 초

자아내에 있는 억제(inhibition)를 파괴하는데 영향을 미쳐 인간의 타고난 잠재적 격렬성을 표출시킨다는 가정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Gelles<sup>2)</sup>는 알콜의 탈억제적 속성의 기능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는 남편들이 자신의 행위의 책임을 술의 탓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콜·약물이론에 대한 과학적 지지가 부족하므로 부부폭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사회심리학적 이론 :** 이 이론은 개인과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이에 속하는 세부이론중 좌절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에 의하면 개인의 사회적 노력이 끊임없이 좌절되었을 때 분노와 근심으로서 공격이 발생한다는 가정에 의해서 공격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원래 배지상태라고 가정하며, 폭력행위는 타인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학습되어질 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경험에 의해서도 학습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

**(3) 사회문화적 이론 :** 이 이론은 거시적 분석수준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폭력과 가족관계에 관한 규범, 문화적 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공평성(socially-structured inequality)의 견지에서 폭력을 설명한다.

사회문화적 이론들중에서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은 가족폭력에 최초로 명백하게 적용된 이론으로서, Goode<sup>17)</sup>에 의하면 권력의 원천에 이바지하는 자원들이 부족한 남편들은 폭력의 사용이 비록 비합법적인 행위일지라도 최후의 자원으로 폭력에 의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Straus<sup>8)</sup>는 가족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을 적용하였는데, 즉 폭력을 체계내에 이미 존재하는 상호작용에서 초래되어지는 체계의 산물 또는 결과로 본다. 이 이론은 긍정적인 피이드백과 부정적인 피이드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부부폭력에 적용시켜 보면 만일 남편이 폭력을 사용했을 때 아내가 이를 용서해주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피이드백이 생겨 그 행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구조적 이론(structural theory)은 사

회구조적 스트레스가 사회전체에 걸쳐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업, 고용의 불안정성, 지리적 불안정성과 같은 사회구조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좌절감은 폭력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sup>2)</sup>.

또한 Dobash와 Dobash<sup>7)</sup>는 아직까지 가족폭력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가리워진 독특한 현상으로서 여성학대를 설명하였다. 이들은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가족구조가 경제적·사회적과정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여성에게로 방항지위지는 체계적 폭력의 역사적 pattern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부장제로만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론으로서의 결점을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폭력 발생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어떤 단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발생원인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 C.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 1) 사회계층과 부부권력

Blood와 Wolfe<sup>14)</sup>는 학력이 높은 배우자가 더 많은 결정을 하며, 남편 지배형 가정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남편의 권력이 커진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Safilios-Rothschild<sup>21)</sup>는 자영 상공업자와 미숙련 노동자들이 전문직이나 행정직에 있는 남편들보다 가정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Wilkening<sup>22)</sup>는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공동 결정이 증가된다고 하였으며, 최 재석<sup>23)</sup>은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남편 지배형, 높을수록 부인 지배형의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 흥은<sup>24)</sup>에 의하면 부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인의 수입이 중간 정도일 때 부인의 권력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변인인 직업, 학력, 수입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 2) 사회계층과 부부폭력

Petersen<sup>25)</sup>은 직업지위가 높은 남편들이 낮은 남편들보다 아내학대가 적다고 하였으며, Steinmetz<sup>3)</sup>는 실업상태가 종종 남편들에게 있어 그들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방해하므로 아내학대와 연관된다

고 하였다. 아울러 수입수준과 폭력사이의 관계는 주로 간접적인 것으로서, 더 많은 재정적 자원을 가진 가족은 좌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여러 서비스를 취할 수 있으므로 폭력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 경화<sup>26)</sup>는 아내의 취업유무보다는 직업종류가 아내학대를 좌우한다고 하면서 직업지위가 낮은 아내가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수입이 낮을수록 아내학대가 많다고 하였다.

한편 O'Brien<sup>18)</sup>과 Gelles<sup>2)</sup>는 남편의 학력과 폭력 사이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김 정옥<sup>27)</sup>은 부부간의 학력차가 클수록 그리고 아내의 학력이 남편보다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학대가 많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남편이 실업상태이거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부부간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간의 학력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수입이 낮을수록 폭력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3) 부부권력과 부부폭력**

부부권력과 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Straus<sup>6)</sup>는 권력구조가 부인지배 또는 남편지배일 때 남편에 의한 신체적 폭력의 사용은 많아지며, 아울러 가족의 폭력수준은 부인이 의사결정에서 지배적일 때 가장 높아진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부인지배적인 권력구조는 남편이 가족의 가장이어야 한다는 가족의 은연중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의 사용이 가장 빈번해진다는 것이다.

Kumagai와 O'Donoghue<sup>4)</sup>는 일본과 미국에서의 부부권력과 폭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부권력과 폭력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남편의 권력과 부인에 대한 남편의 의논 행동사이에 정적 관계가, 그리고 남편의 권력과 남편의 폭력사이에는 부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반면, 남편의 상대적 권력이 낮을 때는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Kumagai<sup>5)</sup>는 일본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권력과 폭력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부부권력과 폭력사이에는 관계가 적거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중류층에서는 남편의 권력이 증가할 때 남편의 폭력이

증가하나, 하류층에서는 부인의 권력이 증가할 때 남편의 폭력사용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즉 부부폭력에 대한 Goode의 자원이론이 하류층에서 적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숙<sup>28)</sup>은 신체적인 부인학대가 부부권력 공유형 및 자율형 가정보다 남편 지배형 가정과 부인 지배형 가정에서 더 많이 행해진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폭력은 부부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며, 또한 남편의 상대적 권력이 적을 때 남편은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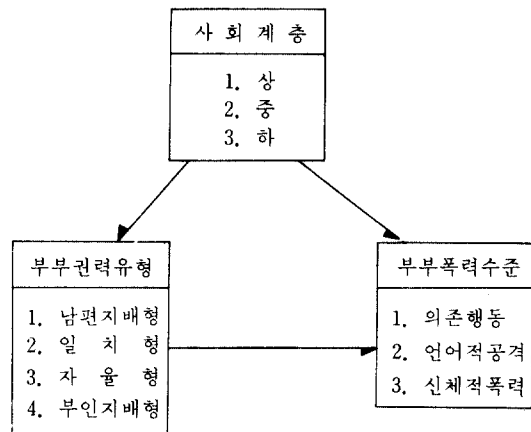
연구문제 I.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권력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 남편과 부인의 폭력수준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폭력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V.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IV. 연구방법

## A.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생이다.

부부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부부권력과 부부폭력이 매우 민감한 주제이므로 어떤 사회의 남편과 부인도 이들 주제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는 반면에, 제 3 자로서 고등학생인 가족의 자녀들은 그들 부모들보다 이들 주제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자녀들의 정직한 보고는 부모들의 면담으로부터 얻어진 것보다도 사실상 더 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up>2)</sup>.

그리고 사회계층별로 연구대상을 고르게 표집하기 위해서 상·중·하류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와 상업계 고등학교 3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B. 측정도구

## 1) 부부권력유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통해서 그들 부모의 권력을 측정해야 하므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권력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권력결과는 일련의 중요하고 전형적인 가족결정과 관련하여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점수를 더하면서 권력의 양으로 환산되는 변인으로서, 이 변인은 질문 문항의 대표성에 관련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즉 가족내에는 결정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아서 그 중 어떤 것을 문항화하는가에 따라 같은 부부라도 권력점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권력측정도구는 국내·외의 연구들<sup>1,11,14,23,29-31)</sup>을 근거로 기초문항을 작성한 후, 실제 가정생활과 관련되는지를 부부들에게 물어보아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정사항들이 골고루 들어 가도록 측정도구를 구성함으로써 질문 문항의 대표성에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했으며, 고등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표현을 수정하였다. 이

&lt;표 1&gt;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N=492)

변 인	구 분	아 버 지		어 머 니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부모의 학 력	무 학	3	0.6	3	0.6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	32	6.5	78	15.9
	중 학 교 중퇴 및 졸업	66	13.4	118	24.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68	34.1	170	34.6
	대 학 교 중퇴 및 졸업	168	34.1	111	22.6
	대 학 원 졸업이상	55	11.2	12	2.4
	합 계	492	100.0	492	100.0
부모의 직 업	무 직	11	2.2	283	57.5
	가내부업, 행상, 수위, 청소부등	22	4.5	80	16.3
	피고용기술자, 서어비스직종사자	82	16.7	16	3.3
	자영상공인, 일반판매종사자	123	25.0	85	17.3
	일반사무직종사자, 보안업무종사자	18	3.7	2	0.4
	계장급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전기나 기계기사	54	11.0	7	1.4
	기술직(교사, 수의사, 약사등)	25	5.1	15	3.0
	관리직(과장급이상의 공무원, 회사원)	120	24.4		
	전문직, 대기업주, 자본가등	37	7.5	4	0.8
	합 계	492	100.0	492	100.0

렇게 해서 작성된 측정도구는 총 54문항으로서, 각 문항의 반응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54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장이 어렵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은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였으며, 무응답이 많이 나온 4문항이 제외되었다. 다시 50문항에 대하여 변별도 분석과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2기준에 해당하는 7문항을 제외시켰다. 첫째, 변별력이 .2이하인 문항과 둘째, 각 문항과 나머지 문항들간의 상관관계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들만을 정리하였을 때 유의한 것이 10개 미만인 문항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50문항에서 7문항을 제외한 43문항을 최종적인 문항으로 선택하여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alpha$ 는 .8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권력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는 가정학 전공의 교수 2명에게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부부폭력수준**

부부폭력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의 Conflict Tactics Scale(CTS)을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CTS는 폭력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들중의 하나로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sup>21)</sup>.

본 연구에서는 과거 1년간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CTS의 각 행동상황에 대해 남편이 부인에게 그리고 부인이 남편에게 얼마나 자주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해당되는 적절한 횟수에 반응하도록 요구되었다. 각 문항의 반응은 Likert형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CTS의 각 하위영역이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로 산출하였

으며, 부인에 대한 남편의 CTS 전체 신뢰도는  $\alpha = .84$ 이며, 남편에 대한 부인의 CTS 전체 신뢰도는  $\alpha = .75$ 로서 높게 나타났다.

**3) 사회계층**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을 분류하는데 있어 아버지의 직업과 교육수준을 근거로 하여 사회계층을 상·중·하류로 구분하였다<sup>(주1)</sup>. 본 연구의 대상이 고등학생이므로 가족의 월수입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였다.

따라서 아버지의 직업은 홍 등승<sup>33)</sup>의 직업분류에 의하여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의 여섯 집단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구대상의 사회계층별 빈도 및 백분율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계층 지표의 타당도를 검증해 보기 위하여 사회계층 및 사회계층을 구성하는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계층과 아버지의 직업( $r = .88$ ), 사회계층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r = .64$ )간 상관관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계층 지표의 타당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1988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소재의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부권력 유형의 측정도구는 수정 보완하였고, 부부폭력수준의 측정도구는 고등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본 조사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소재의 9개 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고등학생 581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492부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연구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를 위해  $\chi^2$ -test,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표 2> 사회계층별 연구대상의 빈도 및 백분율

사회계층	빈도(명)	백분율(%)
상	136	27.6
중	245	49.8
하	111	22.6
합계	492	100.0

(주1) 전 춘애(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78-82 참고.

으며, 추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유의도는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 V. 결과 및 해석(주2)

### A. 사회계층과 부부권력유형

연구문제 I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대상 전체 부부의 권력유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부부권력유형은 Wolfe<sup>34)</sup>가 제시한 상대적 권위의 지표(RA: relative authority)와 부부가 가정내에서 공유하는 권위에 정도(DS: degree of shared au-

<표 3> 부부권력유형

부부권력유형 (43문항)	RA	DS	빈도 (명)	백분율 (%)
남편지배형	43~106		8	1.6
일치형	107~151	22~43	49	10.0
자율형	107~151	0~21	356	72.3
부인지배형	152~215		79	16.1
합계			492	100.0

<표 4>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권력유형의 차이

부부 권력유형	사회계층			
	상	중	하	합계
남편지배형	3 ( 2.2)	2 ( 0.8)	3 ( 2.7)	8 ( 1.6)
일치형	17 ( 12.5)	29 ( 11.8)	3 ( 2.7)	49 ( 10.0)
자율형	102 ( 75.0)	176 ( 71.8)	78 ( 70.3)	356 ( 72.3)
부인지배형	14 ( 10.3)	38 ( 15.5)	27 ( 24.3)	79 ( 16.1)
합계	136 (100.0)	245 (100.0)	111 (100.0)	492 (100.0)

$\chi^2=17.4686^{**}$ ,  $df=6$ ,  $^{**}P<.01$  단위: 명

Gamma = -0.2651 ( ): Column Percentage

(주2)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부의 권력과 폭력은 이를 부부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에 대하여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한 것에 근거한다. 따라서 "부부"라 할 때 사실은 "부모"에 관해 논의하는 것으로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thority)에 의해 결정되었다.

<연구문제 I>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권력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변인간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중·하류층 모두에서 자율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표 3>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가정의 부부권력유형에서 자율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율형을 제외하고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권력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일치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부인지배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평등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이 온죽<sup>30)</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이 온죽의 연구결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남편 지배형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Rodman이 분류한 4가지 사회유형중 수정된 가부장제 사회에 속하는데<sup>35)</sup>, Rodman은 수정된 가부장제 사회의 하류층 남편들에게는 가부장적 규범이 강하게 남아있어 남편이 가족내에서 권력을 많이 행사한다고 하였으므로, 하류층에서 부인지배형이 더 많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 사회계층별 부인들의 취업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사회계층별 부인들의 취업유무

부인들의 취업유무	사회계층		상		중		하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비취업	121	89.0	121	49.4	41	36.9		
취업 <sup>(주3)</sup>	15	11.0	124	50.6	70	63.1		
합계	136	100.0	245	100.0	111	100.0		

(주3) 본 연구에서는 가내부업(뜨개질, 구슬달기등)도 취업을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류층 부인들의 63.1%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41.4%가 가내부업, 행상, 막노동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6> 남편과 부인의 폭력수준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1. 부인에 대한 남편의 의논행동	—					
2.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공격	.06	—				
3.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폭력	-.05	.67***	—			
4.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논행동	.59***	.26***	.13***	—		
5.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공격	.24***	.50***	.24***	.24***	—	
6. 남편에 대한 부인의 신체적공격	.00	.29***	.29***	.02	.33***	—

\*\*\*P < .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류층 부인들의 63.1%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류층에서 부인 지배형이 더 많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계층에 이룰수록 여성의 취업이 남편의 권력에 위협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 Hoffman<sup>36)</sup>, Goode<sup>37)</sup>의 연구결과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B. 남편과 부인의 폭력수준간의 관계**

(연구문제 II) 남편과 부인의 폭력수준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II를 검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과 부인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같은 폭력수준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59, .50, .29)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Kumagai<sup>4,5,38)</sup>, 이 영숙<sup>28)</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umagai와 Straus<sup>38)</sup>는 이러한 결과에 호혜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reciprocity)를 적용하였는데 만약 한 배우자의 언어적 공격이 심하면 상대방도 이와 유사한 폭력수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배우자의 행동은 상대 배우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거나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사이의 상관계수는 .67, .33으로서(p < .001)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Straus<sup>39)</sup>, 이 영숙<sup>28)</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시 말하여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체적 폭력이 더욱 많이 행해짐을 의미한다.

한편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 공격과 부인에 대

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사이의 상관계수는 .24로서(p < .001)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인이 남편에게 언어적 공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남편이 그들의 부인을 더 많이 구타할 것이라는 Nye<sup>40)</sup>의 명제를 지지한다.

**C. 사회계층과 부부폭력수준**

<연구문제 III>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폭력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III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부폭력수준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계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F=26.96, p < .001)은 상·중·하류층 모두에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F=9.66, p < .001)과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 공격(F=3.68, p < .05)은 상류층과 중류층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상·중류층과 하류층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 공격이 더욱 많이 행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되어진다는 Gelles<sup>2)</sup>, Steinmetz<sup>3)</sup>, Petersen<sup>25)</sup>, 김 정옥<sup>41)</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사회구조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류층에서 이로 인하여 좌절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 이러한 좌절감은 폭력을 야기시킨다는 구조적 이론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

&lt; 표 7 &gt;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폭력수준의 차이

부부폭력수준의 하위영역	독립 변인 (사회계층)	부 부 폭 력 수 준			
		N	평균	F	Duncan's
부인에 대한 남편의 의논행동	상	131	2.07	0.96	
	중	239	2.03		
	하	110	2.13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공격	상	131	1.51	26.96***	A
	중	239	1.73		B
	하	110	2.08		C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폭력	상	131	1.07	9.66***	A
	중	239	1.10		A
	하	110	1.20		B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논행동	상	135	2.13	2.75	
	중	242	2.17		
	하	111	2.33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공격	상	135	1.36	3.68*	A
	중	242	1.40		A
	하	111	1.50		B
남편에 대한 부인의 신체적폭력	상	135	1.02	0.66	
	중	242	1.01		
	하	111	1.01		

\*P&lt;.05    \*\*\*P&lt;.001

다.

또한 하류층 남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한 자존심을 남자된 우월감으로 버티고자 하나, 자신의 부인을 돈벌이에 내보냈다는 자격지심에서 (본 연구에서는 하류층 부인의 63.1%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흔들거리는 가장의 권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 최후의 자원으로서 폭력을 사용한다는 Goode<sup>17)</sup>의 자원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류층 부인들은 남편에게 언어적 공격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류층 부인들이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보상을 적게 받으므로 남편에 대하여 더 비판적이라는 Gelles와 Straus<sup>20)</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하류층 부인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보상을 적게 받으므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더욱 많이 하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남편들은 부인을 더 많이 구타하게 되는 것이다.

#### D.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과의 관계

<연구문제 IV>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IV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부폭력수준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부권력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F=7.81, p<.001)은 남편 지배형, 부인 지배형, 자율형과 일치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F=2.87, p<.05)은 남편 지배형과 자율형·일치형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부권력유형이 남편 지배형이거나 부인 지배형일 때 남편은 부인에게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 표 8 > 부부권력유형에 따른 부부폭력수준의 차이

부부폭력수준의 하위영역	독립 변인 (부부권력유형)	부 부 폭 력 수 준				
		N	평 균	표준편차	F	Duncan's
부인에 대한 남편의 의논행동	남편지배형	8	1.83	0.36	3.07*	
	부인지배형	76	1.96	0.59		
	자 율 형	347	2.06	0.63		
	일 치 형	49	2.28	0.68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공격	남편지배형	8	2.04	0.47	7.81***	A
	부인지배형	76	1.99	0.72		A
	자 율 형	347	1.73	0.62		A
	일 치 형	49	1.47	0.45		B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폭력	남편지배형	8	1.30	0.40	2.87*	A
	부인지배형	76	1.15	0.25		A B
	자 율 형	347	1.11	0.25		B
	일 치 형	49	1.06	0.16		B
남편에 대한 부인의 의논행동	남편지배형	8	2.46	0.31	0.75	
	부인지배형	77	2.24	0.72		
	자 율 형	354	2.17	0.71		
	일 치 형	49	2.27	0.75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공격	남편지배형	8	1.25	0.23	6.29***	
	부인지배형	77	1.55	0.50		
	자 율 형	354	1.40	0.38		
	일 치 형	49	1.25	0.33		
남편에 대한 부인의 신체적폭력	남편지배형	8	1.00	0.00	0.69	
	부인지배형	77	1.02	0.06		
	자 율 형	354	1.01	0.07		
	일 치 형	49	1.01	0.03		

\*P<.05    \*\*\*P<.001

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권력구조가 극도로 남편지배 또는 부인지배일 때 폭력사용이 높아진다고 한 Straus<sup>6)</sup>, 이 영숙<sup>28)</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과의 관계를 사회계층별로 살펴 본 결과, 상류층과 하류층에서는 부부폭력수준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중류층에서는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F=3.73, p<.05)과 신체적 폭력(F=3.84, p<.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Kumagai<sup>5)</sup>의 연구가 있

는데, Kumagai의 연구에서는 부부권력을 부부권력 유형(RA와 DS)으로 제시하지 않고, 권력의 총점수(RA)만으로 측정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또한 중류층에서의 남편 지배형의 빈도수가 매우 적으므로 사실상 해석이 곤란하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 지배형이거나 또는 부인 지배형등 부부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더욱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류층에서 남편의 권력이 증가할수록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이 증가한다는 Kumagai<sup>5)</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9〉 중류층에서의 부부권력유형에 따른 부부폭력수준의 차이

부부폭력수준의 하위영역	독립 변인 (부부권력유형)	부 부 폭 력 수 준				
		N	평 균	표준편차	F	Duncan's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	부인지배형	37	1.97	0.67	3.73*	A
	남편지배형	2	1.86	0.40		AB
	자율형	173	1.71	0.56		B
	일치형	29	1.51	0.52		B
부인에 대한 남편의 신체적 폭력	부인지배형	37	1.19	0.28	3.84**	
	남편지배형	2	1.25	0.18		
	자율형	173	1.08	0.17		
	일치형	29	1.06	0.16		

\*P&lt;.05    \*\*P&lt;.01

##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아울러 부부권력유형과 부부폭력수준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부권력유형은 일치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부인지배형이 많이 나타났다.

둘째, 남편과 부인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같은 폭력수준사이에는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 남편에 대한 부인의 언어적 공격이 더욱 많이 행해지고 있었다.

넷째, 부부권력유형이 남편 지배형이거나 부인지배형일 때 남편은 부인에게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계층별로는 중류층에서의 부인에 대한 남편의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부인지배형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하류층에서의 부인의 취업과 연관되어 부인의 취업은 상류층에서보다 하류층에서 부인의 권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결혼관계에 필요한 자원을 많이 공급한 편이 권력을 많이 소유

한다고 한 자원이론과도 관련되므로, 앞으로는 사회계층에 따라 부부권력을 설명하는 자원이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하류층에서 부부의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이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류층 가족이 사회구조적 스트레스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어진다는 구조적이론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하류층의 남편들은 다른 계층의 남편들보다 가부장적인 규범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그들 부인의 권력이 더 많으므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인에게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폭력을 더욱 많이 행하게 된다. 즉 부부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있는 경우 부부폭력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됨을 의미한다. 하류층의 부인들 또한 그들 남편으로부터 보상을 적게 받으므로 남편에게 잔소리를 더욱 심하게 하고 따라서 그들 남편들은 부인을 더 많이 구타하고 부인 역시 이와 유사한 폭력수준을 사용하므로 폭력의 연쇄성을 일으키리라 생각되어진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자녀가 지각한 그들 부모의 권력과 폭력을 측정했기 때문에, 부부의 실제 권력, 폭력현상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권력결과 척도상의 결함으로 지적된 질문 문항의 대표성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남편과 부인의 결정사항들이 과연 골고루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문맥에 적합한 문항의 가중치 보완된 부부권력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도되어야 하며, 부부의 권력과 폭력에 대해서 부부 자신이 반응한 것과 그들의 자녀가 지각한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연구를 통하여 실제의 부부권력과 폭력현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Kumagai, F., "Field Theory and Conjugal Violence in Jap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2 (4), 1981, pp. 413-28.
2. Gelles, R.J., *The Violent Home: A Study of Physical Aggress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Beverly Hills, Calif.: Sage Publications, 1974.
3. Steinmetz, S.K.,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In M.B. Sussman and S.K. Steinmetz (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ress, 1987, pp. 725-65.
4. Kumagai, F. & G. O'Donoghue, "Conjugal Power and Conjugal Violence in Japan and the U.S.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9, 1978, pp. 211-21.
5. Kumagai, F., "Social Class, Power and Husband-Wife Violence in Japa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0 (1), 1979, pp. 91-105.
6. Straus, M.A.,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 1973, pp. 105-25.
7. Dobash, Rebecca E., and Russell Dobash, *Violence Against W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8. Winter, D.G., *The Power Motive*,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9. Cromwell, R.E. & Olson, D.M., *Power in Famil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5.
10. McDonald, G.W., "Family Power: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980, pp. 841-54.
11. Gray-Little, B. & Burks, N., "Power and Satisfaction in Marriage: A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93 (3), 1983, 김홍은,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에서 재인용

12. Scanzoni, J., "Social Processes and Power in Families," In Burr, W.R., R. Hill, F.I. Nye and I. L. Reiss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 295-316.
13. Heer, D.M., "The measurement and bases of Family Power: An Over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5 (2), 1963, pp. 133-39.
14. Blood, R.O. & D.M. Wolfe, *Husbands and Wives*, New York: The Free Press, 1960.
15. Rodman, H., "Marital Power in France, Greece, Yugoslavia,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national discu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1967, pp. 320-25
16. Rodman, H.,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 1972, pp. 50-69.
17. Goode, W.J.,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4), 1971, pp. 624-36.
18. O'Brien, J.E., "Violence in Divorce 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4), 1971, pp. 692-98.
19. Straus, M.A.,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 pp. 75-88.
20. Gelles, R.J. & M.A. Straus,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Burr, W.R., R. Hill, F.I. Nye and I.L. Reiss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 549-81.
21. Safilios-Rothschild, C., "A Comparison of Power Structur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urban Greek and French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2), 1967, pp. 345-52.
22. Wilkening, E. A., "Joint Decision-Making in Farm Families as a Function of Status and Ro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 1958, pp. 187-92
23. 최재석, "한국 도시가족의 권력구조-서울시 가족을 중심으로-", 아세아 연구, 제14권 4호,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1, pp. 77-95.
24. 김홍은,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5. Petersen, R., Social Class, Social Learning and

- Wife Abuse," *Social Service Review*, 1980, pp. 390-406.
26. 김경화, "아내 학대의 영향 변인에 대한 조사 연구-도시가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7. 김정옥, "도시 부부의 갈등해결 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대한 가정학회지, 제23권 2호, 1985 pp. 91-110.
  28. 이영숙, "한국 도시가족 부부간의 지위관계와 부인 학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29. 윤현봉, "부부간의 권력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0. 이은숙 "한국 가족의 부부간의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 사회학, 제11집, 1977, pp. 95-107.
  31. 한남제, "한국 도시 가족의 권위 관계-미국 도시가족과의 비교 연구-", 한국 사회학, 제 6 집, 1971, pp. 55-67.
  32. Gelles, R.J.,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4), 1980, pp. 143-55.
  33. 홍두승,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한국 표준 직업분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제 5 권 3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83, pp. 69-86.
  34. Wolfe, D.M., "Power and Authority in the Family," In D. Cartwright (ed.), *Studies in Social Power*, Ann Arbor: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1959.
  35. Kim, on-jook Lee, & Kyong-dong kim, "A Causal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n Parental Decision-Making Role Patterns in the Korean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8, 1977. Lee, G.R., *Family Structure and Interaction* (2nd ed.),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p. 222에서 재인용
  36. Hoffman, L.W., "Effects of the employment of Mothers on parental power relation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In Farber (ed.), *Kinship and Family Org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66, 이효재, 가족과 사회, 서울 : 경문사, 1984, p. 366에서 재인용.
  37. Goode, William J., *The Family*, New York: Engle 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4, 한남제, "한국 도시가족의 권위관계-미국 도시가족과의 비교연구-", 한국 사회학, 제 6 집, 1971, pp. 55-67에서 재인용.
  38. Kumagai, F. & Straus, M.A., "Conflict Resolution Tactics in Japan, India and the U.S. 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4 (3) 1983, pp. 377-87.
  39. Straus, M.A., "Leveling, Civility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1974 pp. 13-29 with Addendum (August) pp. 442-45.
  40. Nye, F.I.,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Burr, W.R., R' Hill, F.I. Nye and I.L. Reiss (ed.),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pp. 1-41.
  41. 김정옥, "도시 부부의 폭력행위에 관한 연구-아내에 대한 폭력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42. Devereux, E.C., U. Bronfenbrenner, & R.R. Rogers, "Child-Rearing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National Comparis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1969, pp. 257-70.